

“스펙쌓기로 지친 몸 집밥 먹고 힘내소”

자비신행회·증심사·정안사
대학생·고시원생 등 청년층에
매주 수·목요일 무료 집밥 나눔



“한국인은 밥심이제” 26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의동 보성빌딩 1층 빛고를 자연사찰음식 체험관에서 (사)자비신행회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고시원생 등 청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최현해기자 choi@

광주시 동구 대의동 일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학원과 고시원에서 청춘을 보내는 청년들의 고단함이 배어있는 곳이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학원을 찾는 대학생, 그리고 학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선 학생들까지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층들이 가득하다.

고단한 일상에 지친 대의동 청년들에게 엄마의 정성이 가득한 ‘집밥’을 무료로 나누는 청년식당이 있다.

26일 오후 대의동 빛고를자연사찰음식 체험관은 인근 학원가 청년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들의 손길로 분주했다. 엄마들이 자식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이날 메뉴는 카레라이스.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직접 무친 숙주 나물과 열무김치, 그리고 후식으로 준비한 방울토마토도 함께 차려졌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삼삼오오 청년식당을 찾아가 시작한 취업준비생들은 금주막한 그릇에 밥과 카레를 버무리며 식사를 시작했다. 평소 학원이 인근 저렴한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던 청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식사를 마친 청년들은 감사 인사로 이날 밥값을 대신했다.

2년 전 목포에서 올라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청년(30)은 “매

번 사먹는 음식이 질리면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그리울 때가 있다”며 “청년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주면서도 마치 엄마가 해주는 밥처럼 정성을 다해줘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자비신행회와 증심사, 정안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청년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시생과 대학생 등 타지에서 올라와 고생하는 청년학생들에게 엄마들의 정이 담긴 따뜻한 ‘집밥’을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당초 청년식당은 자비신행회와 증심사가 공동으로 매주 수요일 60여명의 저녁 식사를 마련하면서 시작했다. 지난 3월

부터는 취지에 공감한 정안사가 힘을 보태면서 매주 수·목요일로 급식 횟수를 확대하고, 식사도 80여명분으로 늘었다.

대상은 대학생과 고시원 학생 등 20~30대 청년층으로만 국한시켰다.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점심 대신 일주일에 두 차례 저녁만 제공하기로 했다. 건강을 생각해 조미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한 가정의 엄마들이다. 배식 봉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래의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매주 청년식당을 찾고 있다.

단지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공무원 등에 합격하면 청년식당에서의 작은 기억을 사회에 전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사로 은퇴한 한 봉사자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은 “자원봉사자들은 학생들이 어느날 시험에 합격해 식당에 나오지 않으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정이 가득 담긴 따뜻한 집밥으로 청년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시험대에 선 임우진 서구청장

공무원노조 성과주의 반발·상무급요시장 폐쇄 갈등

서구청 “공직기강·무질서 바로잡기 일환... 대화로 풀어야”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27일 시험대에 오른다. 구청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성과주의를 접으라’고 촉구하며 퇴진시위 돌입을 예고한 공무원 노조, 밖으로는 상무급요시장 폐쇄를 둘러싸고 노점상인들과의 갈등이 이날 임 청장의 결단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렀다는 지적과 주민 복지 실현과 질서 회복을 위한 선출된 구청장의 ‘용단’이라는 시각이 교차한다.

상무급요시장 노점상인회는 “20년째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을 내모는 임 청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27일 정오에 치령

동 성당 앞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서구청의 노점상 폐쇄에 맞서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광주지역 노점상인, 전국 단위의 노점상연합회 회원 등 1000여명이 이날 자리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서구청 공무원노조도 이날까지 임 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노조는 앞서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성과주의를 맹신한 임 청장 때문에 불행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임 청장 취임이후 서구청행정은 공공성을 잃고, 지나친 경쟁 탓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27일까지

성과주의 강행 중단을 선언하지 않으면 퇴진 시위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일 구청에서 업무 중 쓰러져 숨진 김모(47) 주무관 사건, 출을 잇는 휴직 신청자, 업무 부담감을 호소하는 직원 모두 임 청장이 성과주의를 집착한데서 비롯됐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퇴진 시위를 벌이려고 집회시교를 이미 마쳤다. 이제 선택은 임 청장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임 청장 취임 후 섬세한 주민 복지 실현, 공직 기강 확립 등 공격적인 변화가 적지 않다”면서 “다만, 관선이 아닌 민선 청장으로 공무원을 독려해 민생을 돌보고 무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심정은 백번 동의하고 지지하지만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새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이재정 교육감 추대 움직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7일 강원도 속초시 마레몬스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새 회장을 추대한다.

협의회는 현 회장인 장규국 광주시교육감의 임기가 다음달로 만료됨에 따라 임기 2년의 새 회장을 추대할 계획이다.

회장 선출은 표결 방식이 아닌 합의추대 형식으로 이뤄지며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추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직을 마무리하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또 감사원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분석 발표에 따른 대응 방향, 전교조 전일자 직권면직 및 교육감 고발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해질 19:38, 달뜨기 23:51, 달지기 09:55

미세먼지 주의하세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17/28	보성	구름많음	17/26
목포	구름많음	17/26	순천	구름많음	18/27
여수	구름많음	19/24	영광	구름많음	16/26
나주	구름많음	16/28	진도	구름많음	17/25
완도	구름많음	17/27	전주	구름많음	16/29
구례	구름많음	16/28	군산	구름많음	16/26
강진	구름많음	17/27	남원	구름많음	16/29
해남	구름많음	16/27	홍산도	구름많음	16/21
장성	구름많음	16/27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해	서부	서~북서	0.5	서~북서	0.5
	동부	서~북서	0.5~1.0	서~북서	0.5
제주	서부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동부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생활지수

주요	☀️	주의
식중독	☀️	주의
높음	☀️	주의
자외선	☀️	주의
미세먼지	☀️	주의

주간 날씨

28(토)	29(일)	30(월)	31(화)	6/1(수)	6/2(목)	3(금)
☀️	☀️	☀️	☀️	☀️	☀️	☀️
18/24	17/26	16/29	16/28	16/28	17/29	17/28

닷 오른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모

진도군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팽목항 인근에 들어서는 국민해양안전관의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착수했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 입찰공모를 냈다. 예산은 1억8500만원이다.

진도군은 다음달 업체들의 제안서를 심사해 용역업체를 선정, 8월까지 국민해양안전관의 윤곽을 그릴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해양안전관의 기본 방향, 체험 및 전시시설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건축 기본 계획, 향

후 관리·운영 계획 등이 담기게 된다.

진도군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는 9~10월 중 설계공모를 하고 내년 4~5월께 착공, 2018년까지 건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들어서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교육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두 2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부지는 지난달 26일 열린 부지선정을 위한 건립실무위원회에서 팽목항에서 500여m 거리에 있는 임회면 남동리 산90번지 일원(8만㎡)으로 최종확정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하수찌꺼기 투기’ 명성환경 항소심도 패소

무려 9369t의 하수찌꺼기를 농촌 야산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허가가 취소된 (주)명성환경이 행정기관의 취소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5년 3월17일자 6면》 26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이날 광주 고등법원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명성환경이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업체 측은 하수찌꺼기 무단투기 적발과 유죄판결 확정

은 인정하지만, 이는 회사 측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종업원의 행위로 회사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성환경은 지난 2010년부터 1년간량 자신들과 계약한 업체로부터 수거한 하수찌꺼기 9369t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중간재활용하지 않고 무단군과 함평군 야산 등에 380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 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방지에 스틸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 가지 않는 물세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고민 단열방수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샘물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1599-7652 NAVER **연합건설** 검색

광주·전남지사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팬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성 잡종지 15,628㎡(5,167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